

문화

행복한 책읽기

이성서 '리딩으로 리드하라' <문학동네>

인문고전 독서의 장점은 길게는 수천 년 짝꿍은 수백 년 동안 각 시대의 리더들에게 철저하게 검증받은, 인간에 관한 최고의 지...

가 완성된다고 한다. 이쯤 되면 고전 읽기는 곧 자기수행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이성서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것이 모두 인간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인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Reading'(문학고전을 통해...

진정한 경영은 인간을 움직여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경영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Reading' 해야 'Lead' 한다

의 『금융의 연금술』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나는 철학자의 눈으로 금융시장을 보았고 그 결과 과...

지혜는 책속에 있지 않다. 인간의 내면에 존재한다. 인문고전 독서를 통해 내면의 지혜를 일깨워

이 정도면 인문고전 읽기가 성공의 지름길처럼 보인다. 하지만 선불리 판단할 일 아니다. 저자는 인문고전 읽기에 조건을 제시한다.

서 두뇌 속에 '철학하는 세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눈앞의 이익이나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입체적이며 혁명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차노훤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당선



에전 그 모습 그대로다. 빼고덕 대는 나무 마루바닥, 누군가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을 낙서, 낡은 LP와 테이프, 많은 이들이 앉아서 쉬...

고전음악 감상실 '베토벤'

클래식 불모지 광주에 고전음악 첫 뿌리내려 독서토론·음악감상회 함께...10월엔 음악회

상실 '베토벤'이 문을 연지 꼭 30년이 됐다.

베토벤은 '필하모니' 등이 문을 닫으면서 오랜 기간 광주의 유일한 클래식 음악감상실이었다. 최근 몇년 사이에 '한울림'(광주시 서구 치평동), '다락'(광주시 서구 학동) 등 클래식 전문음악감상실이 생겨나...

한명이었다.

베토벤은 문을 닫을 뻔하기도 했다. 지난 2008년 갑작스레 짐싸게 올리다가 주인장은 심각하게 폐업을 고민했었다. 이 때 다시 감상실을 일컫는 '한울림'이 문을 닫고, 그곳에서 음악으로 위안받았던 단골 손님들이었다. 소문이 돌자마자 순식간에 '베토벤을 살리기 위한 모임'이 결성됐고, 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정적인 음악감상 프로그램, 인문학 강좌 등이 만들어졌다.



올해로 문을 연지 꼭 30년이 된 고전음악감상실 '베토벤'은 광주의 문화를 살찌우는 공간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올재' 구할곳 어디 없나요

권당 2900원 '올재 클래식스'...전자책 무료 제공



반응이 폭발적이다. '지혜 나눔'과 '공의 실천'이라는 취지를 내걸고 판매된 2900원짜리 고전 5권이 일주일도 안돼 온라인 판매 분량이 모두 팔렸다.

'올재 클래식스'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파스칼의 '광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유수원의 '우서', 최한기의 '기초체력', '한글중용·대학' 등 동서양 고전 얘기다.

는 상황에서 2900원이면 '올재' 한 권이 될 정도로 파격적 가격. 영국의 한 출판사가 1.9파운드로 고전을 판매한 데 착안, 2000년대 가격을 책정했다.

기업 등 여러 곳에서 도움을 준 것도 2900원이란 가격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에 출간된 5권은 삼성, 현대가 출판비용을 냈다. 교보문고는 인터넷 지원에 맡겼고 번역자나 유족, 한국고전번역원 등은 비교적 한 가격에 저작권을 내줬다.

사단법인 올재(이사장 홍정욱)가

인쇄값만 권당 5000~6000원이 넘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기부한 1000권을 제외한 나머지 4000권을 13일 상자에 내렸는데, 교보문고를 통한 온라인 판매분(2000권)이 5일만인 18일 다 팔려버렸다. 6개월이 지나도 팔리지 않고 남은 책들도 소외계층 기부에 쓰겠다고 했던 계획이 무색한 형편. 그나마 오프라인 유통을 교보문고로 한정된 탓에 광주·전남 지역 서점에서는 구할 데도 없다.

올재측이 지난 1·4월 분기별로 내놓은 '올재 클래식스' 1·2사리지도 모두 동났다. 다만, 책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를 통해 전자책으로 무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디자인비엔날레 방향 모색 19일 무등파크호텔서 워크숍

광주비엔날레재단은 19일 무등파크호텔에서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산업화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디자인비엔날레의 지역 산업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내년 디자인비엔날레 주제로 사실상 확정된 '거시기(겉이기) 머시기(머지기)' 의미비롯, 주제에 맞는 전시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디자인비엔날레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다와부동산 새테크컨설팅... 근린시설 / 근린주택... 다과구주택 / 단독주택... 토지 매매

부동산경매 특례 노려라! ~NPL 투자 '열풍' 부실채권(NPL) !! IMF대 대책났던 부실채권 다시 인기 !!

금당 공인중개사 건물매도... 나대지... 시골주택 및 주택지... 매매·교환

매매교환 전문 빌딩, 모텔, 땅...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고물건 상가빌딩매매... 광고물건 (토지매매)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 임대... 수익성 부동산매매

대인동심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금매(토지) 용도 ★ 단독주택 ★ 평수 ★ 185평 (610.5㎡) ★ 위치 ★ 광주시 신창동 반월마을 ★ 매도가 ★ 2억천만원 010-4353-5678